POBA LIFE

POBA MAGAZINE VOL.15

만나고 싶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POBA 인터뷰
박준하 이사장 외 이사 3인

POBA 사람들
자산관리팀

POBA Plus
판교 알파돔시티 6-1 블록

POBA 인베스트먼트
국내외 투자 자산

POBA NEWS

편견 없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 존중에서 출발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왼쪽부터) 마경덕 주무관, 임애순 팀장, 강명효 주무관, 서용조 주무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다양한 가족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은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팀이다.

글 박영임 **사진** 김재현(눈픽쳐스)

모습은 달라도 모두 소중한 가족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서윤(가명)이가 자신의 멋진 친구들을 소개해준다. 아빠와 함께 요리 유튜버로 활약 중인 영호, 친구 같은 다정한 엄마를 둔 가은, K-팝 댄싱킹 재민. 이들은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각기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서윤은 모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친구들이라며 자랑한다. 서윤이의 말은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이들을 머쓱하게 만든다.

이는 2020년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전하기 위해 제작한 7분짜리 홍보 동영상의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영상은 '다양한 가족을 품으면 다양한 사회가 열립니다'라는 맺음말로 끝나는데, 이 문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 다양성 슬로건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이다.

"예전에는 물질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는데 2020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1인 가구 등 모두 우리 사회의 다 같은 가족이니까요."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임애순 팀장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법률상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이외의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새 가족 정책의 골자도 바로 '다양성'이다. 이렇게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어 가족다문화팀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하고 정의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족정책은 취약위기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 모든 가정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저희 팀 업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광주광역시 가가호호 컷툰 공모전 포스터

산모 돌보미 활동

전국 우수사례로 꼽힌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출산을 앞둔 다문화가족에 친정국 출신의 산모 돌보미를 파견해 출산 준비를 돕는 '다문화가족 산모 지원 사업'은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사업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이 클 시기, 언어도 문화도 낯선 결혼 이주 여성이 출산을 맞으면 불안감이 더욱 커져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친정국 출신의 산모 돌보미를 양성해 70여 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산모 지원 사업은 벌써 시행한 지 10년이 넘어 서비스를 받은 가구가 110가구에 이른다. 간혹 산모 지원 서비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에 고마움을 느낀 이주 여성이 다른 이주 여성을 돕고자 산모 돌보미로 나서곤 하는데 그럴 때면 뿌듯함과 훈훈함을 느끼게 된다는 임애순 팀장. 지난해에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억 8,6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청소년 심리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다문화가족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일탈·비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청소년 상담치료와 부모들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한 결과, 광주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활동은 행정안전부의 2021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모든 가족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부모가족의 가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빨래나 청소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가사 스트레스를 덜어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올해는 사업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 가구도 2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에는 6개의 미혼모자가족시설이 있다. 하지만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여기저기 낡고 헐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가족다문화팀은 국비와 시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렇다고 어렵게 지원받은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할 수는 없는 일. 가족다문화팀은 지난해 5월 시장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경청의 날'에 맞춰 미혼모자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피력한 끝에 추가로 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았다.

"손도 못 대고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리모델링을 시작해 현재 설계작업 중입니다. 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월 생활지원비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주시 동구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8%로, 전국 평균인 40%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래서 올해 동구를 대상으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동호회나 중년 남성을 위한 요리 교실, 여성 가구를 위한 보안장치 설치 등 1인 가구 중에서도 계층별 필요를 수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양극화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다양한 가족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식 개선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어우러져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 바로 광주광역시청 가족다문화팀이 꿈꾸는 세상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현장 경청의 날 참석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 양극화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다양한 가족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식 개선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가족 다양성 포용"

임애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팀장

대시민 행정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특히 취약계층을 상대하는 복지업무는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심성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다양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 같이 잘 사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늘 가졌던 신념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과 노력으로 회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박준하 이사장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던 코로나19의 파도 속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성과를 기록하며 30만 지방공무원 회원들과 함께 했다. 그 선봉장으로서 행정공제회를 이끈 박준하 이사장이 202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아 회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글 김지연 **사진** 김재현(눈픽쳐스)

코로나19로 인해 자산 운용 환경이나 회원 복지 등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공제회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인데, 예측이란 건 늘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투명성이 더 높아지기도 했고요. 출장 등 이동에도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격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잘 극복해왔다고 봅니다.

행정공제회 수장으로서 이사장님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늘 가졌던 신념은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부서 간의 갈등이 없도록 직원끼리 서로 존중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고, 회원님들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투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일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이지만 3.6조 원 규모의 순투자를 집행해 지난해 대비 3.6배의 대규모 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인 5천억 원 이상의 성과를 냈고, 자산 규모도 1조 8천억 원이 증가해 18조 2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행정공제회 창립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회원님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했고, 각 부서들과의 논의를 통해 조직 및 인력 확충 등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행정공제회 임직원과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조직의 성격상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조심스러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새해에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파이팅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께는 늘 감사합니다.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격려로 행정공제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지방공무원 회원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환경으로 건전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감사

> 부패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울여 건전한 투자 환경 속에서 건전한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윤리경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김대중 감사. 착하고 순수한 행정공제회 직원들과 함께 해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에게 감사팀의 한 해 목표에 대해 들어보았다.

2021년을 마무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공제회는 150명에 이르는 직원이 단 한 명도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한 데 대해 고맙고,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나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감사팀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사실 감사 업무가 바쁘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년 목표는 제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웃음). 윤리경영과 부패 예방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별다른 사고 없이 일년이 잘 지나갔습니다.

2021년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일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행정공제회가 2021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반부패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우리 감사팀 직원 한 명이 장관 표창을 받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큰 상을 받게 되어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평소 감사 업무를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 행정공제회 직원들이 정말 착하고 순수해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감사 업무에 있어 중요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추진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원격회의로 만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2년 새해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인 목표는 가족의 건강과 아들 내외의 박사학위 취득입니다. 감사로서는 아주 작은 부패 행동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부패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울여 건전한 투자 환경 속에서 건전한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회원의 신뢰와 지지, 행정공제회의 큰 힘입니다

이충열 관리이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 부서를 총 지휘하는 이충열 관리이사는 무엇보다 30만 지방공무원 회원들의 복지와 소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충열 관리이사가 행정공제회 임직원과 회원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를 들어보았다.

> 복지와 수익성이라는 가치가 동등하게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행정공제회 직원들이 잘 이겨내줬습니다. 직원 중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다들 경각심을 갖고 잘 협조해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 투자 등에서 많은 성과를 내면서 잘 헤쳐 나온 것 같습니다.

2021년 신년 목표는 무엇이었고,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수익 사업 위주의 금융기관 같은 느낌이 강해서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그 다음 차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복지와 수익성이라는 가치가 동등하게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는 회원님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을 위해 회원사업본부를 구상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대의원들과 자주 만나 협의를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공제회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집단은 큰 항공모함과 같아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공무원 집단은 조금 보수적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공무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밀레니얼세대, MZ세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대 회원님들이 향후 공제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에서 공감하고 일을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2년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새로 부임하실 사업이사님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가교 역할을 잘 해서 수익성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서인 만큼 좀 더 집중적으로 관련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현장 상담을 통해 공제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니즈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행정공제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한결 같이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임기간 6년, 좋은 성과로 보답해 뜻깊습니다

장동헌 사업이사

2015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부임한 장동헌 사업이사는 6년간 쌓아 올린 성과를 통해 행정공제회의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2021년 창립 이래 최대 성과 달성이라는 기록을 만든 장동헌 사업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2021년을 마무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행정공제회 임기 마지막 해였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투자를 통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성과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신년 목표는 무엇이었고,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투자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정공제회의 자산 건전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6년 연속 자산 건전성 상승을 이뤘고, 연초에 세웠던 당기순이익 목표도 10배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행정공제회 사업을 총괄하시면서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일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11월 말에 있었던 판교 6-1 블록 오피스 빌딩 준공식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는 등 행정공제회 역사상 단일 투자 건으로 가장 큰 투자 건이어서 규모적인 측면에도 그렇지만 투자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각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2020년에 평가해 본 바로는 불과 3년 만에 자산 가치가 2배로 올랐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거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 관리에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1년간의 사업 성과에 대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투자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데 이동의 제약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하는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외 파트너들과 다년간 맺어온 좋은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90점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행정공제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이사 최초로 연임하여 6년 동안 행정공제회에서 근무했는데, 회원님들께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어 뜻깊고 보람 있었습니다. 행정공제회가 지난 6년간 많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님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정공제회의 자산 건전성입니다.”

(왼쪽부터) 이기섭 팀장, 신인수 부장,
김영수 과장, 박지성 대리

행정공제회 자산 관리는 우리에게 맡겨라!

자산관리팀

최근 준공된 판교 알파돔시티 6-1블록을 비롯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투자 자산 전반의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실현하고 있는 자산관리팀을 만나보자.

글 김지연 **사진** 김재현(눈픽쳐스)

전국 각지에 구축한 투자 자산

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 본부에 속한 자산관리팀은 국내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와 투자 자산의 프로젝트 관리(PM)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투자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이기섭 팀장과 판교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신인수 부장, 판교 6-1, 6-3블록 펀드 관련 업무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수 과장, 중원골프장 펀드와 광주회관 부지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박지성 대리까지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도 팀 예산 수립 및 관리, 팀 투자 자산 현황 및 자금 수지 관리 등 투자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자산관리팀이 관리하는 국내부동산 투자자산은 오피스, 골프장, 물류센터, 레지덴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판교 핵심권역 우량 오피스 자산에 펀드를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고, 충주에 위치한 중원골프장을 매입·운영하는 펀드에 투자, 용인국제물류 단지 조성 PF대출 및 물류센터(M4, M6블록) 선매입 REITs 투자, PFV(코크렙상무) 지분투자를 통한 광주회관 부지 재개발(주상복합) 사업 투자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행정공제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 판교 6-1블록 수익증권 2차 Sell-down을 완료해 투자원금 429억 원에 대한 533억 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했다. 자산관리팀 이기섭 팀장 역시 판교 6-1블록 준공 개발 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신규 대형 프로젝트였던 용인국제물류센터 발굴로 안정적인 우량 수익원을 추가로 마련했던 것을 지난해 자산관리팀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성과를 토대로 날개 단 성장

지난해 자산관리팀의 손을 거친 자산들은 많은 성과를 남겼다. 판교 6-1블록 개발 마무리, 용인국제물류센터 발굴 외에도 판교구청사 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펀드 설정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9.49%의 내부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김포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투자 자산 기반을 쌓아올린 자산관리팀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체계적인 운용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판교 6-1블록의 재융자(리파이낸싱) 및 임대차를 개시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하며, 오는 5월부터 국내 최대 IT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의 임대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착수했던 판교구청사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12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친환경 건물 인증(LEED)을 추진하여 자산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국제물류센터는 1사분기 내 책임임차인 LOC를 체결하여 총 9만 평 중 6만 평 규모의 장기임대차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및 인허가는 5월 내 착수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기존 PF사업인 판교복합단지와 아산복합단지의 PFV·AMC 청산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광주회관 부지사업 및 국내 개발블라인드 펀드, 호텔인터시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김포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우량 부동산 개발사업 발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듯 자산관리팀은 꾸준한 투자 자산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여, 행정공제회 회원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Mini Interview

자산관리팀 **이기섭 팀장**

"2021년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해주신 팀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판교 6-1블록 개발사업처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사업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교 新 랜드마크의 탄생

판교 알파돔시티 6-1 블록

지난해 11월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알파돔시티 건물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6-1 블록 복합시설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로 완공된 6-1 블록은 올해 국내 대표 IT기업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김재현(눈픽쳐스)

>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6-1블록 준공식

역대 최대 규모 투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은 판교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지역에 총 사업비 5조 300억 원을 투자해 진행된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으로, 행정공제회는 이번 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성 초부터 가장 큰 지분(26.54%)을 투자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대지면적 10,767㎡(3,257평), 연면적 162,734㎡(49,227평),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 알파돔시티 6-1 블록은 행정공제회가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총 4,290억 원을 투자해 지어졌다. 2019년 3월 착공해 2021년 10월 건물준공승인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8,000억 원 규모(토지비 3,500억 원, 공사비 2,448억 원 등)로 준공된 6-1 블록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가 100% 책임 임차해 올해 중 입주할 예정이다.

국내 IT 산업을 이끌 요충지

알파돔시티가 자리한 판교 신도시는 IT 및 벤처 산업 클러스터로 급성장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2020년 기준 약 15만 명의 상주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알파돔시티 앞에 위치한 신분당선 판교역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14분이 소요되며, 건물 300m 이내에 약 30개의 간선, 지선, 광역 노선 버스가 오가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판교 IC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인근 성남역에 GTX-A 노선이 들어서면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포 센트럴시티의 2.3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의 3.4배 규모로 꾸며진 알파돔시티는 7개 블록에 걸쳐 10여 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고 연면적이 총 1.22㎢(368,941평)로 축구장 167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근의 판교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알파리움 주상복합, 신세계 조선호텔 그래비티 서울판교 등이 들어서 있어 수도권 남부의 핵심 상권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IT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 등 40개 이상의 IT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국내외 물류 허브 자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고품질 시스템과 접근성을 두루 갖춘 물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과 북유럽에 위치한 대규모 물류 자산을 각각 소개한다.

글 김지연

인천 항동
티제이물류센터

떠오르는 新 수도권 물류 허브

인천 항동 티제이물류센터

지역 내 최대 규모 물류 자산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에 위치한 티제이물류센터는 냉동·냉장 창고시설 및 부대시설로 연면적 87,103㎡(26,348평)을 자랑한다. 인천 남항 배후지역 내 연면적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저온 물류센터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을 완료했다.

창고시설 5개층을 비롯해 지상 7층으로 구성되었으며, 타 물류센터에 비해 층고를 높게 확보하여 면적 대비 적재 효율성이 뛰어나고 임대 경쟁력도 확보했다. 또한 11톤 트럭부터 40톤 트레일러까지 자주식 램프를 통해 전층 차량의 직접 접안이 가능하며, 센터 내에 대형 트럭이 접근할 수 있는 총 110개(층당 22개) 닥(dock)을 보유해 대규모 물량의 처리가 용이하다.

또한 이커머스, CVS, 케이터링 등 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안정적인 저온설비 운전이 중요한 콜드체인(냉동·냉장에 의한 신선한 식료품의 유통방식) 유통사에 적합한 최신 설비의 저온 물류센터로서 권역 내 콜드체인이 가능한 물류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커머스 1위 기업의 선택

티제이물류센터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에 30분 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 항만을 통한 수출입에 용이하며, 반경 2km 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 수도권 배송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췄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아 인력 확보도 쉬운 편이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해당 자산을 임차했다. 쿠팡은 2014년 자체 차량과 인원으로 24시간 안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로켓배송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전국 60여 개의 물류센터를 잇는 독자적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콜드체인 시스템을 개발해 론칭 4년 만인 2019년 10억 건의 로켓배송을 달성한 바 있다.

쿠팡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5년간의 마스터 리스 계약을 체결해 신선물류허브센터로 활용한다. 특히 수선유지비, 시설관리비용 등 관리비를 임차인 부담으로 계약해 운영기간 중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리스크가 저감되고,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완료하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 항동 티제이물류센터

북유럽의 친환경 물류 자산

임페리얼 포트폴리오(Imperial Portfolio)

스칸디나비아 최적의 위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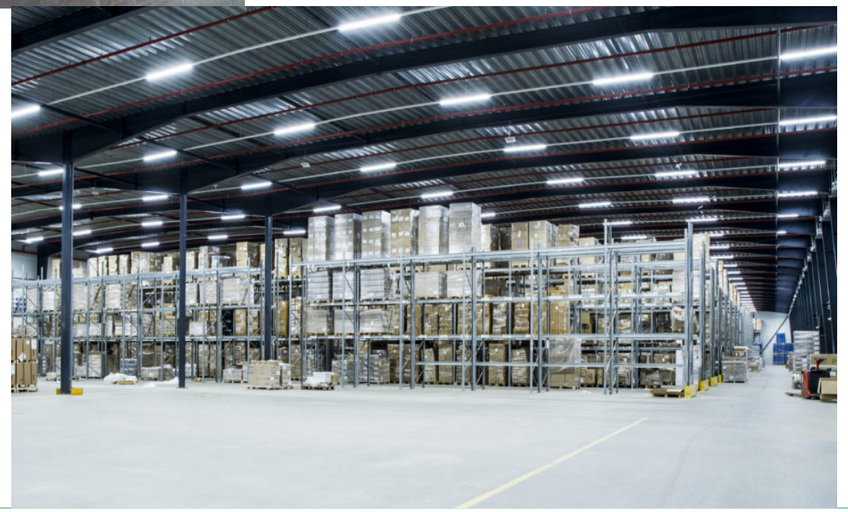
최근 행정공제회가 매입한 북유럽 물류 자산인 임페리얼 포트폴리오(Imperial Portfolio)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4개국에 위치한 연면적 515,000㎡(155,787평) 규모로 20개의 물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AXA 로지스틱스 유럽 펀드의 첫 북유럽 물류 포트폴리오로 절반 이상이 86%가 글로벌 운용사인 AXA IM의 내부 등급 기준 Grade A를 충족하는 고품질 자산이다. 2016~2020년 사이에 준공된 신식이다.

코펜하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를 가로지르는 스칸디나비아 대륙의 로지스틱스 트라이앵글(The Logtistics Triangle)에 위치해 있으며 1,50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해 교통 이용과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

임페리얼 포트폴리오

“다양한 임차인이 입주하여 평균 7.2년의 가중 평균 임대기간과 98.7%의 높은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상), (하) 임페리얼 포트폴리오



ESG 트렌드의 흐름을 따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환경·사회·윤리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산 또한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 A 또는 B를 획득하고 영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BREEAM Certification을 취득하는 등 ESG 트렌드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컨설팅사인 Sweco를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선임해 향후 ESG 요소를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자산에는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식품, 소비재 등 다양한 임차인이 입주하여 평균 7.2년의 가중 평균 임대기간(WALT)과 98.7%의 높은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의 높은 물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OBA
NEWS

POBA LIFE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추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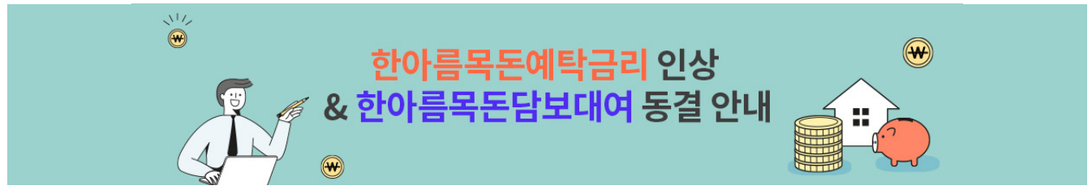
행정공제회가 회원님들의 노후 보장 기반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 불입한도(월 납입회비)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번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조정은 행정공제회의 안정적인 당기순이익 실현과 지급준비율 향상으로 회원님들의 수익배분 요구에 부응하고, 연금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됩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변경
퇴직급여 불입한도 (1구좌=1만 원)	최대 100구좌	**최대 150구좌**

· **시 행 일** : 2022년 1월

· **신청방법** :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퇴직급여 불입한도 상향 안내'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 회원은 회원상담센터(1577-7590)를 통해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월 최소 1구좌 이상(1구좌 단위)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1구좌 단위 미만 금액은 수납이 불가합니다.



한아름목돈예탁급여·담보대여 금리 조정

행정공제회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시중 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을 조정합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조정현황(변동금리, 세전)

구분	1년제 이상		6개월	
	현행	**조정**	현행	**조정**
만기지급식 부가금 연지급식	연 2.10%	**연 2.35%**	연 1.60%	**연 1.85%**
부가금 월지급식 원리금지급식	연 2.08%	**연 2.33%**	연 1.59%	**연 1.84%**

· **부가율 조정일** : 2022년 1월 1일

※ 현재 가입 중인 회원님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부가율을 적용받으며, 부가율 조정일(2022년 1월 1일)부터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한아름목돈 담보대여 이율** : 연 2.60% (현행유지, 1년제 이상 기준)

※ 한아름목돈 부가율 조정에 따른 대여이율 상승으로 가중되는 회원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정상 가산금리 범위 내(0.25%P~1.0%P) 최소 적용으로 대여이율 현행 유지
(현행) 연 2.60% : 기준금리 2.10%(한아름목돈 부가율) + 가산금리 0.50%
(조정) 연 2.60% : 기준금리 2.35%(한아름목돈 부가율, +0.25%P) + 가산금리 0.25%(△0.25%P)

· **상담전화** : 1577-75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2.1일자로 한아름목돈예탁급여 부가율 추가 인상 예정입니다.

POBA
NEWS

POBA LIFE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2022년 회원 복지급여제도 개선

행정공제회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부터 복지급여금을 일부 조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복지급여금 청구 사유는 과거 기준의 조건과 금액을 적용받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복지급여금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에 한하여 적용		
	현행		조정
혼인급여금/ 출산급여금	10만 원	→	**20만 원**
특별요양급여금	10만 원	→	**20만 원**
재해급여금	납입원금에 따라 70~300만 원	→	**납입원금에 따라 100~400만 원**
사망급여금	납입원금에 따라 30~150만 원 (순직 시 50% 가산)	→	**일괄 200만 원 (순직 시 100% 가산)**
출산급여금	출산 시 지급	→	**출산/입양 시 지급**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지급 사유 발생 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재해 및 사망급여금은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금 청구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청구시효 5년).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급여 >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1577-7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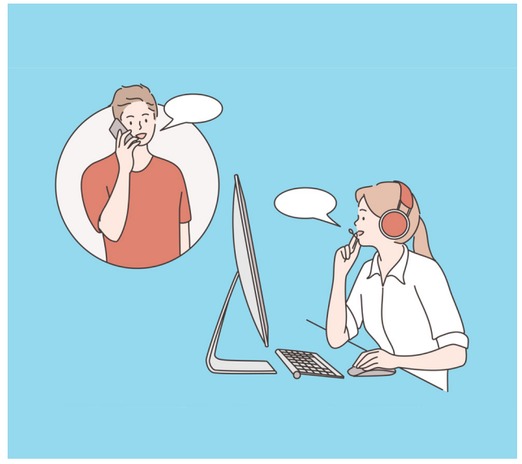
코로나 상생프로젝트 슈퍼특가 성료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코로나 상생 프로젝트 슈퍼특가'를 선보였습니다.

처음 선보인 '코로나 상생프로젝트'는 코로나로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으로 다가가고자 마련한 행사로, 공제회가 직접 공수한 생필품(라면, 스타벅스, 모바일주유권, BHC치킨 구매권 등) 총 18개 상품을 최대 92% 할인된 특가로 선보였습니다.

1차(접수기간 11.22.~30.), 2차(접수기간 12.20.~28.)로 나누어 공제회 회원이면 누구든지 회차별 최대 5개 구매희망 물품을 신청접수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께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구매 가능토록 했습니다(평균 경쟁률 3.3:1).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저희 회원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시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한 콜센터 다원화 체제 확립(2021.12.20.) 소식

32만 회원님들과의 소통 채널 유지를 위하여 기존 1개 센터로 운영하던 회원 상담센터를 2020년 10월을 시작으로 현재 3개의 센터로 다원화 분리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집단감염 등 사유로 특정 센터 폐쇄 시에도 정상 운영 중인 2곳의 센터에서 회원상담 업무를 위한 상시 업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시에도 소중한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제회 콜센터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